

#### 4월 "전 세계 형제자매와 피조물을 위한 기도"를 통한 일상 삶안에서의 실천제안

##### 1. '지구의 부르짖음'에 응답하는 생태적 실천 (Care for Creation)

- 소박한 식탁 (**Simple Eating**): 육류 소비를 줄이거나 로컬 푸드를 이용함으로써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, 지구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동참합니다.
- 에너지 금식: 교회에서 성찰한 '소박한 삶'의 일환으로, 불필요한 전등 끄기,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작은 불편을 선택합니다.
- 생태적 관상: 하루에 5분이라도 자연을 바라보며 "모든 생명은 신성하다"는 기도문의 내용을 되새깁니다.

##### 2. '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'에 응답하는 사회적 실천 (Globalization & Poverty)

- 윤리적 소비: 내가 사는 물건이 저개발 국가 노동자의 빈곤을 심화시키지는 않는지(공정무역 등) 확인하며 '세계화의 상호연관성'을 기억합니다.
- 현대의 미소: "두려움과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" 일상에서 만나는 이주민, 서비스 노동자,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. 그들 안에서 '하느님의 참된 현존'을 발견하려 노력합니다.
- 정기적 나눔: 빈곤 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후원하며 '성령 안의 공동체'로서의 책임을 실천합니다.

##### 3. '그리스도의 몸'이 되는 영적 실천

"그리스도는 우리의 손과 발 외에는 지상에 몸이 없으시다"는 성녀 테레사의 기도를 실천합니다.

- 자비의 눈: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눈 대신,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'가련한 마음(Compassion)'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.
- 행동하는 발: 도움이 필요한 곳을 외면하지 않고, 선한 일을 위해 기꺼이 그곳으로 향하는 '그리스도의 발'이 됩니다.
- 연대하는 손: 기후 위기나 사회 정의를 위한 캠페인에 서명하거나 참여하며, 다른 이들과 '손을 맞잡는(Join arms)' 용기를 냅니다.

아빌라 성녀 테레사의 기도처럼 우리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보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"

- 채민아 만나 드림 -